

# 전북대, 아세안 27개 대학과 교류 '물꼬'

### 중국-아세안 교육교류 주간대회 참석, 대학 소개·국제 프로그램 제안

전북대학교가 최근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에서 열린 '중국-ASEAN 교육교류 주간대회'에 참석해 대학의 장점을 알리고 중국 및 아세안 지역 27개 대학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7~29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류엔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ASEAN 의장국인 필리핀을 비롯한 주중 아세안 국가 대사 10여명과 귀주성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북대는 전체 행사 중 교통기술 및 공학 분야의 포럼에 초대되어 중국 및 아세안 지역 대학 27개 대학과 교류하고 대학 소개 및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날 세션 발표를 한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한국의 국제교육교류 기조와 대학의 발전상, 그리고 현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유학생 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그간의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까지 실시한 농생명 과학기술 전파와 전북대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7대 연구소, 그리고 국제 학생교육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전북대학교는 최근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에서 열린 '중국-ASEAN 교육교류 주간대회'에 참석해 대학의 장점을 알리고 중국 및 아세안 지역 27개 대학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남아시아 대학 총장과 중국 대학과의 MOU 협의도 진행, 추후 공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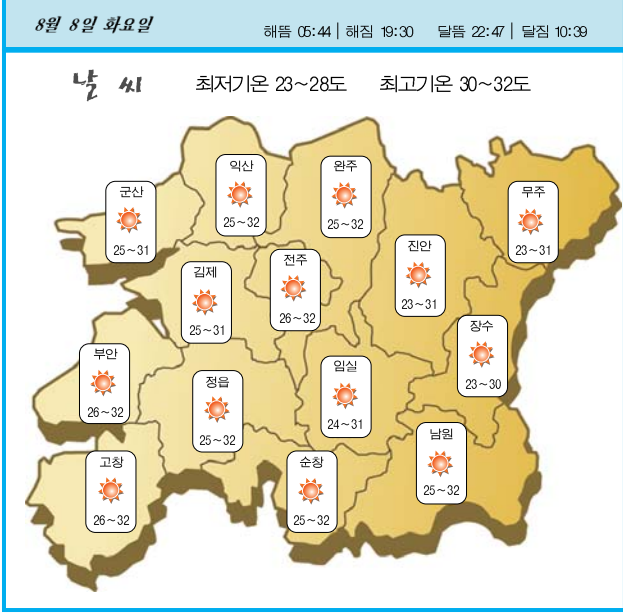
또한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및 중국 서

남부 지역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문단은 지난달 31일 서안으로 이동해 장안대학교 총영사관을 방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

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서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실크로드 문명 및 서안 중국문화 탐방을 위한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2017년 2학기 수강생 모집

### 6개 학부 246개 과정... 학위·국가자격 취득 과정 등 다채

지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윤정수)이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교육복지학부와 생활교양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직업교육학부, 예술학부 등 6개 학부 246개 과정에 315개 반이다.

모집기간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며 방문과 전화(063-288-0022), 인터넷(<http://ec.jnu.ac.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는 6개 일반 평생교육과정뿐 아니라 학위나 각종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

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을 비롯해 보육교사 대면교과목, 청소년지도사 2급 등 국가자격 취득과정, 대학수업을 청강하는 명예학생 과정, 민간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2학기 교육은 내달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주 동안 전주 경원동 구치과대학에 자리한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진다.

/정해은 기자

# 우수 향토기업,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운다

### 전주시, 우수 향토기업 인증제 참가기업 모집 2020년까지 매년 20개사 선정 맞춤형 지원나사

전주시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업인 사기 진작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향토기업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향토기업 인증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수많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온 향토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사 정도를 선정해 전주 우수 향토기업 인증서와 현판

을 교부하고, 각종 행정적 지원에 나서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제 참가기업 모집의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최종 우수 향토기업

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10개 업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기간은 5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다"면서 "우수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기억육필시 전시회 개최

전북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 261인의 기억육필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기를 주제로 세월호 교육문예창작회 37명의 시인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과 학생 261인에 대한 삶과 꿈을 담은 육필시가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교육청 1층 로비에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정해은 기자

## 도내 중등 영어교사 대상 30시간 직무연수

전주교육지원청 주관, 전북중등영어교육연구회 주최(회장 영생교 교장 국방호, 사무국장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윤자)로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연수에 도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26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영어수업을 구상,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 성찰과 나눔을 하며 학생 배움중심 수업방법의 프로젝트학습, 하브루타교육법, 거꾸로수업, 디베이트 수업 등을 실습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기존의 교사 강의중심

수업방법에서 벗어나 학생 배움중심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해 보며 교실현장에 정착시켜 학생들이 행복한 영어수업을 만들고자 노력하여 교수학습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방호 회장은 영어교사들에게 학생 배움중심 수업에 대한 부단한 자기연찬 및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손주현 교육장은 학생들이 행복한 영어수업이 정착되어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참교육을 신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i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